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창작의 필요성

정 준 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새로운 작품을 창작하는것과 함께 소설이나 영화, 연극들가운데서 사상 예술성이 높은 작품을 선정하여 여러가지 형태로 각색하는 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6권 358페이지)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는 소설작품들을 영화로 각색하는것은 영화문학창작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고 사회주의문명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사업이다.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을 창작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이 사업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고 문학예술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문학예술부문사업을 령도하시는 첫 시기부터 문학예술창조사업에서 근본적인 혁신과 변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항일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화폭에 옮기는 사업을 맡기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이 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인 《피바다》, 《꽃피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가 예술영화로 훌륭히 각색되어 방영됨으로써 사회주의위업수행에 펼쳐나선 우리 인민뿐아니라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세계진보적인류의 투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소설, 서사시, 가극, 연극, 독연 등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들을 영화로 각색하는 사업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여러 소설작품들을 영화문학으로 각색하는 사업을 몸소 맡기하시고 각색창조에 서 나서는 리론실천적인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시였다. 주체68(1979)년 3월 3일에는 장편소설 《새봄》과 《생명수》와 같은 종자가 좋은 소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소설들을 잘 각색하면 훌륭한 영화를 만들수 있을것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창작사업을 몸소 지도해주시던 나날에 작품모두를 시대의 명작으로 만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특히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창작에서 영화적대를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창작을 진행할데 대한 명철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후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장편소설 《새봄》을 각색한 영화문학 《양지말 사람들》은 사상적대와 영화적특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훌륭히 완성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민족고전소설을 영화문학으로 각색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고전소설각색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민족고전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 《춘향전》이 훌륭하게 창작되어 우리 민족의 아름답고 고상한 정신세계를 실감있고 감동깊게 보여주며 현대성과 계승성의 원칙이 완벽하게 구현된 작품으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을 각색한 혁명영화문학 《빛나는 아침》, 장편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 《생명수》, 《첫 기슭에서》, 《림격정》, 중편, 단편소설을 각색한 《전사들》, 《조난》, 《참된 심정》, 《백일홍》, 《새 세대》, 고전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 《홍길동》, 《하랑과 진장군》, 《보심록》, 《춘향전》, 《량반전》 등이 훌륭히 창작완성되어 군인들과 인민들의 교육교양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창작사업이 주체적이며 과학적인 리론과 방법에 기초하여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올수 있는것은 우리의 영화예술을 최상의 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이처럼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창작은 우리의 영화예술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을 창작하는것은 다음으로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 방도의 하나로 된다.

영화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문제들중에서 영화문학의 창작은 무시할수 없는 문제로 된다. 이미 창작발표된 소설작품들은 새로운 영화문학소재의 원천이라고 할수 있다.

소설작품들이 영화문학의 풍부한 소재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우선 창작발표된 여러 형태의 문학예술작품들가운데서 소설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이다.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창작발표된 소설작품만 놓고보아도 그 수를 헤아릴수 없다.

소설작품이 영화문학의 풍부한 소재의 원천으로 되는것은 또한 다른 문학형태들에 비하여 소설이 취급하는 생활영역과 주제반영의 폭이 대단히 넓으며 세부가 섬세하기때문이다.

문학작품들은 그 종류와 형태에 따라 묘사방식에서 자기식의 특징을 가지고있다.

한 형태의 묘사방식을 다른 형태의 묘사방식으로 바꿀 때에는 해당한 묘사방식의 특성에 맞게 개작하여야 한다. 소설은 서사적묘사방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인간생활을 객관적인 립장에서 묘사를 기본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영화문학은 극적묘사방식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인간생활을 주로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러므로 주로 묘사로서 실지 생활을 보는듯이 그려낸 소설을 영화문학으로 옮기자면 소설의 줄거리와 생활세부들을 등장인물들의 말과 행동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소설은 다른 묘사방식보다 생활을 더 폭넓고 자유롭게 묘사한다. 소설에는 가극이나 연극같은 문학형태에서 취급하기 어려운 생활내용들을 다 담을수 있다. 소설에서는 직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물론 내면심리의 뒤생활도 마음먹은대로 보여줄수 있으며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고 인간과 생활의 전모를 그려낼수 있다. 생활영역이 넓고 생활세부가 섬세한것만큼 영화의 특성에 맞게 취사선택하는데도 유리하다.

이와 같은 특성으로부터 소설은 영화문학으로 각색하는데 적중한 소재원천으로 되는 것이다.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창작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다음으로 인민들을 사상정신적으로 교양하고 우리 나라의 현실과 인민들의 자주적인 삶과 창조적인 투쟁을 반영한 소

설작품들의 사상에술적성과를 보다 공고히 할수 있기때문이다.

소설문학은 묘사를 기본으로 인간과 그 생활을 섬세하게 그려낸다면 영화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으로 생활의 진리를 밝혀낸다.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취급하였다고 하여도 소설과 영화는 자기식의 감화력을 가진다. 소설작품을 읽으면서 상상으로 그려보던 인물들과 사건들을 영화를 통하여 직관적으로 접할 때 사람들은 또 다른 감흥을 받아안을수 있다.

실례로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을 각색한 혁명영화문학 《빛나는 아침》을 들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빛나는 아침》은 이미 창작발표되어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커다란 감화력을 안겨준 작품이다.

작품은 항일전의 포연서린 군복도 벗으실사이없이 새 조국건설을 령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식민지통치의 후과로 모든것이 파괴된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부강하고 자주적인 새 민주조선을 일떠세우기 위한 방도를 인재문제를 푸는데 두시고 일제에게 복무하던 인테리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 새 조선의 지식인들로 키워주시는것과 함께 조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민족간부육성의 토대를 마련하시는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담고있다.

이러한 내용을 안고있는 작품을 영화로 옮긴 혁명영화문학 《빛나는 아침》은 또 다른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강병철, 양춘만, 한명구를 비롯하여 각이한 인생행로를 걸어온 식민지인테리들이 새 조국을 위한 보람찬 삶을 누리도록 믿음과 사랑을 주시고 그들을 사상과 정견을 초월하여 애국의 한길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특출한 위인적풍모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없이 고매한 인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태양의 모습을 잇을수 없는 화폭으로 간직되게 하였다.

총서작품들뿐아니라 당과 수령에 대한 도덕의리심을 간직하고 한마음 변함없이 수령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아름다운 정신세계와 당의 령도밑에 고난과 시련을 과감히 뚫고나가며 조국을 떠받든 우리 인민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많은 장편소설들과 중, 단편소설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소설작품들을 영화로 각색하는것은 사람들이 항일혁명투사들과 조국해방전쟁시기 영웅전사들, 전후복구건설시기와 천리마대고조시대의 로력혁신자들이 발휘한 수령옹위정신과 조국결사수호정신, 영웅적투쟁정신과 무비의 희생정신을 따라배워 그들처럼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가꾸는 길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싸워나가겠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영화예술부문의 모든 창작가들은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키는 진군의 앞장에 자신들이 서있다는 시대적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소설을 각색한 영화문학창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우리의 영화예술고를 풍부히 하는데서 자신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